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gmail.com

[제1독서]..... 스바 3,14-18ㄱ

[화답송] 이사 12,2-3.4ㄴ ㄷ ㄹ.5-6 (◎ 6)



(후렴)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위 대 하시 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제 2 독서] 필립 4,4-7

[복음환호송] 이사 61,1(루카 4,18 인용)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3,10-18

[성가안내]

- 입당성가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91] 구세주 빨리 오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영혼을 위하여)	연령희
전 마지 마가렛	울릿타 김경련
전 마지 마가렛, 이재호 클레멘스	익명
정 영도, 김 영복 아네스	익명
김 기순 안나	김 성중 다두
김 복혜	김 범석 루카 베드로
유 앵도	유 미경 크리스티나
민 병택 베드로	민 정신 아폴로니아
백미사	봉헌
김 영빈 가정 미사	김 영빈
남 승례 아가다 (건강회복을 위하여)	이 은경 헬렌
이 영애 레지나, 양 미숙 마리아	이 정현 헬레나
김 금옥	정 희자 리드비나
김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2월12일	이영노 울리안나	박기목 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유정옥 유스티나	장동환 헨리코	김하나 미리암
12월19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김승연 안나	민완준 필립보	안선정 마리안나	한창희 바오로	정은철 프란치스코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탄 판공성사]**

대림시기 동안 고백성사를 (어느 성당이나 관계없음) 받으시는 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된 '판공성사표' 작성하셔서 사무실 앞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공동체의 속죄와 보속**

주일 미사 전 9시까지 성당에 오시어 미사 독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 하도록 합시다.

● **주님 성탄 대축일 꽃 봉헌 받습니다.**

봉헌금은 미국 본당에서 준비하는 성탄 전례 꽃꽂이에 사용됩니다.

● **2022년 주보 광고 신청 (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풍물패 '신명' 연습 있습니다.**

- 12월 12일 오후 2시 ~ 4시 교육관 3A

● **Booster Shots 무료 접종 신청하세요.**

- 12월 12일 10AM ~ 3PM 클레어 룸. 1,2차 백신 카드 지참.
- <http://forms.gle/eE6/vxXTPvV942HaGA>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찬양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기뻐하여라 주일’

‘Gaudete 주일’ 이라고 불리는 오늘, 교회가 우리를 깊이 있는 참된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도해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미 용서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빛을 지고 또 갚을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이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특별히 그 빛을 탕감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한 바로 그 순간,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하며 모든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죄를 뉘우치고 참으로 회개한 이에게 내적 평화와 기쁨을 주시어 그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예언적인 선포는 그의 말을 듣던 군중이 제기한 질문에서 그 반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군중에게 참된 회개와 하느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대답합니다.

- 안 봉환 스테파노 신부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김동희(헬레나)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용기(요셉) |
| 지군자(스테파니) | 정창동(폴리나) |
| 고종호(마태오) | 진정은(마리아) |
| 홍봉운(바오로) | 이진자(세실리아) |
| 이병국 (요한) | 노의선(프란치스코)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

[2021년 1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3,10-18)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사가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길 닦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오시는 주님'안에 희망을 두고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실천하여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제 1독서 스바냐 예언서는 '예루살렘의 재건'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는 '심판의 날'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Dies Irae-Day of warth, 주님께서 오시는 이날은 재앙의 날이지만 예언자는 오늘 기쁨의 환성을 올리라고 외쳤습니다.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 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주님의 분노가 타오르는 상황에서 기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예언자는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 같이 주님께서 사랑으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 주셨으니 기쁨의 환성을 올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 필리피서는 '권고'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오로는 감옥에 수감되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어 그 무엇도 짐작하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대림 제3주일은 한 때 "Gaudete; 기뻐하여라" 주일로 불리었습니다. 오늘의 화답송 (이사 12,2-3참조) 처럼, '기뻐하자'는 뜻을 새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낯설지만 그런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자고 오늘 노래합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특 쏘는 영성

"그냥 믿어야 하나요?"

문 : 저는 서른 살 청년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종교를 다니면서 길을 찾다가 성당서 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한 어른들은 "믿음은 의문을 가지려고 하거나 물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한다"며 "주님께서도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제 마음으로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품었기에 질책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구도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구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형제님의 마음가짐은 바른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말하기를 믿음은 '해답인 동시에 '물음'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거나 혹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24시간 열려 있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들은 사랑, 용서, 행복, 상실, 두려움, 인내, 수용 등으로, 인간다워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마음도 유아적 상태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방랑자들입니다.

늘 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랑 수행자, 구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떠나란 말은 아니고 마음이 진리를 찾아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심리학자들은 방랑자의 원형을 인류 특유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 고유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 자리에 안주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퇴행하여서 고집스럽고 흥해져 갑니다. 방랑자들은 무언가를 배울 때 권위자들이 던지는 답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복종이나 경직된 도덕관은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영성 심리학자의 견해입니다. 새로운 도덕, 새로운 관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하고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의미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되면 방어기제 중에서 '내사'라는 방어기제,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 고문을 가하는 방어기제가 생겨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은 늘 우울하고 힘겨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고문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어느 시점에서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일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는 삶일까? 하는 물음- 그래야 하느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 되었지만 그의 시는 힘이 넘쳤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내적 탐구를 하면서 삶의 활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회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 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 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볼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 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리라.

- 집회 4,11-13 -